

출제의도, 문항해설 및 평가기준

01. 출제의도

- 가) 제시문을 일정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나) 단순 암기나 도식적인 이해를 넘어선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 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력을 평가한다.
- 라) 적절한 개념과 논리를 이용하여 조리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02. 문항해설

- 이 문항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대표적인 동양 성인들의 성찰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본디 악하다는 전제 하에 후천적인 훈육에 의해 선하게 바뀔 수 있다는 이론을 개진하고 있다.
 - 제시문 (나)는 맹자의 인성론이 피력되고 있지만, 전형적인 성선설이 아니라 (가)와 마찬가지로 후천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점을 수험생이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 제시문 (다)는 학생기자가 작성한 기사로, 고등학교 학생의 시선에서 그들의 관심사인 봉사활동이 지닌 가치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다.
- 제시문 (가)와 (나)에서 제시된 인성론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텍스트 분석력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동시에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03. 평가기준

가) 8등급으로 평가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나)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평가

다)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평가

라)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평가

마)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내용] 32점

- 제시문 (가)와 (나)는 각각 『순자』와 『맹자』에서 인용된 지문이다. 지문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한 답안은 『맹자』에서 인용되었으니 성선설이 피력되었다고 서술하는 경우다. 이러한 선입견에 기반한 답안은 2~3등급 감점
- 제시문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결정론을 부정하며, 후천적으로 인격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답안은 1~2등급 감점
- 제시문 (가)는 교육과 법도라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강조하지만, 제시문 (나)는 개인의 실천적인 노력을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를 간과한 답안은 1~2등급 감점
- 제시문 (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 봉사활동 의무화의 목적과 문제점에 대해,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적인 견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답안은 1~2등급 감점

[형식] 8점

가)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 ③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가 두 개(분석, 극복 방안 제시)임에 따라 문단 나누기가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평가

나) 분량

- ① 600자 초과 : 1~2등급 감점
- ②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③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 ④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 ⑤ 350자 미만 : F

예시 답안

제시문 (가)와 (나)는 인격 함양과 관련된 순자와 맹자의 사상을 서술하고 있다. (가)에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본디 악하지만 인위적인 노력으로 선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성악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인격 함양을 위한 교육과 법도를 강조한다. (나)에서 맹자는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누구나 요순처럼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천 그 자체를 강조한다. 두 제시문의 공통점은 개인이나 사회의 노력에 따라 인격이 함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다루고 있다. 봉사활동은 인성교육을 목표로 2000년부터 교육과정에 정착되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상급학교 진학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순자의 견해에 따르면 봉사활동 의무화는 학생들의 교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나, 단지 진학 수단에만 머문다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맹자에 따르면 봉사활동 자체도 가치가 없지 않지만, 인격 함양이 되기 위해서는 봉사의 의미를 인식하면서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